

2020. 09. 15. (화) 석간용

이 보도자료는 2020년 9월 15일 오전 06:00부터 보도할 수 있습니다.

I·SEOUL·U

보도자료

담당부서 : 도시재생실 주거재생과

사진없음 사진있음 쪽수 : 5쪽

주거재생과장	양준모	2133-7155
주거재생정책팀장	박일형	2133-7164
담 당 자	이승환	2133-7179

서울시, 낡은 주택과 골목길 패키지 개선사업 본격 추진

- 도시재생 뉴딜지역 12개소 대상, '서울형 뉴딜 골목주택 외관개선 사업' 시행
- 노후 골목길과 연접주택 외관 통합 개선으로 마을 단위 환경개선 효과 기대
- 가구당 최대 자부담 10%포함 1,241만원 지원, 자치구가 대상지 선정 및 설계·시공 주도
- 친환경보일러 등 건물에너지효율 개선사업, 투수블럭 포장, LED가로등도 지원

서울시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중랑구 묵2동 등 12개 지역을 대상으로 「서울형 뉴딜 골목주택 외관개선사업」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.

- 「서울형 뉴딜 골목주택 외관개선사업(이하 서울형 개선사업)」은 재생지역내 저층주택과 골목길을 통합 개선하는 노후 저층주거지 환경개선사업으로써, 정부 뉴딜사업의 하나인 「도시재생 뉴딜 집수리사업」의 서울형 사업이라 할 수 있다.
- 자치구가 대상지를 선정해 설계부터 시공까지 주도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. 호·세대 당 자부담 10%를 포함해 최대 1,241만 원이 지원된다.(국비 90% 지원)

- 서울형 개선사업은 자부담 10% 만으로 노후 주택 외관을 개선할 수 있어 장점이 크다. 그럼에도 그 간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없어 현재 추진 중인 12개소가 사업에 착수하고도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었다.
 - 서울시 내 추진 중인 도시재생 뉴딜 사업지(우리동네살리기형, 일반근린형, 주거지지원형)는 총 13개소로, 이중 12개소에서 「도시재생 뉴딜 집수리사업」을 추진 중이다.

- 서울시는 주민들과 자치구가 참고할 수 있도록, 올해 1월부터 국토교통부와 약 8개월에 걸친 실무회의와 협의를 하였으며, 그 결과 서울의 특성을 구체적으로 반영한 사업계획을 수립하였다.
 - 우선, 별도 기준이 없었던 지원대상과 조건을 명확히 해 ‘도시재생 뉴딜 사업지 내 도시재생활성화계획으로 정비 예정이거나 이미 정비를 완료한 골목길과 접하고 있는 노후 주택’으로 명시했다.
 - 지원범위도 ‘주택 외부 집수리 및 리모델링’으로 구체화해 국토부의 사업목적과 정합성을 유지하도록 했다. 구체적으로, 지붕·옥상(방수, 옥상녹화 등), 외벽(단열, 고효율 창호교체 등), 옥외공간(주차장, 계단, 화단·쉼터 등) 등 공사를 지원받을 수 있다.
 - 서울형 개선사업의 설계~시공 전 과정을 주도하는 자치구의 역할도 명시했다. 자치구는 지역주민들의 충분한 참여를 전제로 하는 투명한 선정기준을 마련해 대상지를 선정해야 하며, 취약계층이나 독거어르신 세대 밀집지역을 우선 발굴해야 한다.
 - 자치구는 대상지 결정 후 설계자와 시공사를 직접 선정해 사업을 진행해야 하며, 준공 이후에도 주민과 함께 관리방안을 마련해야 한다.

- 아울러, 경제위기와 기후위기에 동시에 대응하기 위한 ‘서울판 그린뉴딜’ 전략과 서울시가 그 동안 추진해온 친환경 정책이 서울형 개선사업에 적극 도입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적용 방법도 담았다.
 - 예컨대, 외벽과 창호는 단열 성능이 좋은 제품으로 설치해 난방비 절감효과를 거둘 수 있고, 골목길 바닥은 투수블럭으로 포장하며 LED 가로등과 인공지능형 방범CCTV도 설치할 수 있다.
 - 또한, 빗물저금통을 설치하거나, 기존 보일러를 에너지 효율이 높은 친환경(저녹스) 보일러로 교체하는 등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여러 친환경 사업을 골목주택 개선에 적극 도입토록 하였다.

- 서울시는 집 따로, 골목길 따로가 아닌, 골목길과 주변 노후 주택을 패키지로 함께 개선함으로써 골목길 전체에 활력을 불어넣고, 도시재생의 효과를 주민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.
 - 시는 또한, 이번 가이드라인을 통해 현재 사업 추진 중인 12곳 중 7곳에서 연내 사업지를 선정하고 설계용역 발주 등 본격적인 사업에 착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.

- 류훈 도시재생 실장은 “서울형 개선사업은 국토교통부와의 지속적인 협의와 노력 끝에 나온 결과이며, 주민들은 적은 부담으로 집을 고칠 수 있고, 낡은 주택과 불편한 골목길을 함께 정비 할 수 있어 재생사업의 체감도를 높일 수 있을 것.”이라며 “앞으로도 도시재생지역 내 가시적인 환경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.”고 말했다.

- ※ 붙임 1. 「서울형 뉴딜 골목주택 외관개선 사업」 예시도 1부.
 - 2. 「서울형 뉴딜 골목주택 외관개선 사업」 추진 지역도 끝.

붙임 1. 「서울형 뉴딜 골목주택 외관개선 사업」 예시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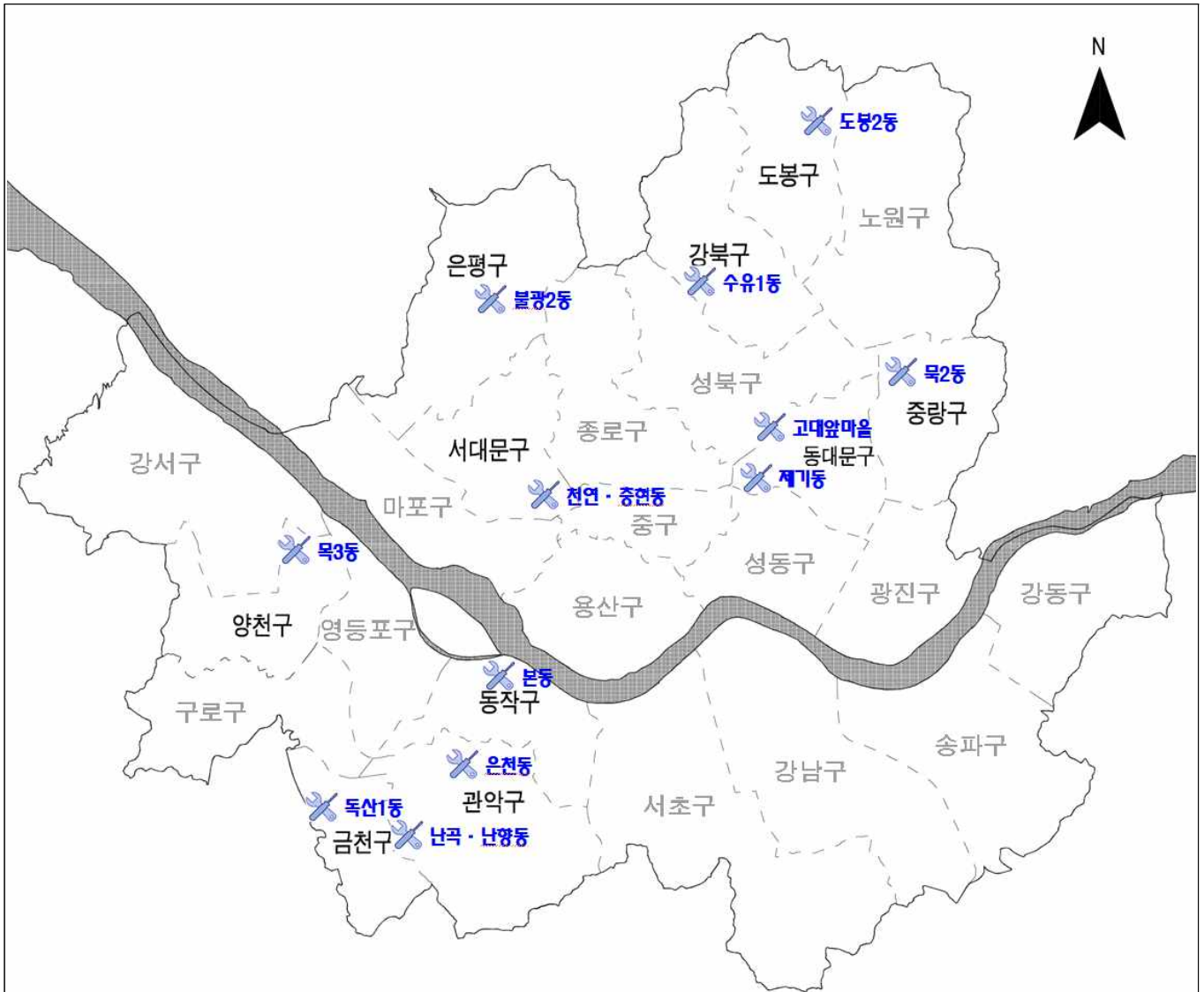


사업시행 전



사업시행 후

붙임 2. 「서울형 뉴딜 골목주택 외관개선 사업」 추진 지역도



추진지역도

연번	자치구	지역	사업기간	비고
1	중랑구	목2동	'19~'22	일반근린형
2	강북구	수유1동	'19~'22	주거지지원형
3	은평구	불광2동	'19~'22	주거지지원형
4	서대문구	천연층현	'19~'22	일반근린형
5	관악구	난곡난향	'19~'22	주거지지원형
6	동대문구	제기동(감초마을)	'19~'21	우리동네살리기
7	금천구	독산1동(금하마을)	'19~'21	우리동네살리기
8	동작구	본동	'20~'22	우리동네살리기
9	양천구	목3동	'20~'23	일반근린형
10	동대문구	제기동(고대앞마을)	'20~'22	우리동네살리기
11	관악구	은천동	'20~'22	우리동네살리기
12	도봉구	도봉2동	'20~'23	주거지지원형

추진지역